

다(多)세대 사회의 세대통합 : 세대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_희망제작소 <세대공감 시리즈>를 중심으로

허세나 | 시민사업팀 연구원 (doer2048@makehope.org)

I 요약

-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서 다(多)세대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세대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세대통합'은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 세대통합이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善意)의 공동 목표를 설정,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협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과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세대공감'은 세대 간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고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하는 것을 뜻한다.
- 해외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처할 새로운 전략으로 '세대통합'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대통합'을 위해 세대 간 1) 물리적 접촉 양을 늘리고(share site) 2)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세대 간의 긍정적 경험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세대통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13년부터 세대통합 사업인 '세대공감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세대 간 접촉이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이러한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 키워드 세대통합, 시니어, 청년, 세대공감, 세대소통, 세대갈등, 사회갈등, 고령화

1. 왜 지금, 세대통합인가?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¹⁾사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영국의 사회문제, 즉 '세대갈등'을 가시화시켰다. EU(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청년 세대와 탈퇴를 지지하는 시니어 세대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 채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 영국의 독립적 영광을 경험해본 시니어 세대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럽인'으로 살아온 청년 세대의 경험은 국민투표 앞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표면적 갈등의 주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비춰졌다. 한창 사회에 진출하고 일해야 하는 시기인 청년 세대는 유럽인으로서 다른 EU국에 진출해 노동, 거주, 학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시니어 세대는 EU 부담금과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영국의 연금 복지 재원이 고갈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의 이면에는 각 세대의 경험과 욕구의 차이가 빚어낸 세대갈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온·오프라인에서 시니어 세대에 대해 거침없이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시니어 세대는 다수 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사태는 고령화가 더 이상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다.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 즉 세대 간의 문제인 것이다. 집단 간 힘의 균형과 방향이 현격히 편중되어 있을 때 갈등은 오히려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해질 때, 그리고 힘의 균형에 변화가 올 때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표출된다. 바로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세대별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견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시니어 세대²⁾는 고속성장을 경험하며 정부와 보수당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는 이런 과실을 맛보지 못한 채 저성장시대 속에 취업난,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³⁾ 이 같은 경험 차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데 이것은 고(高)성장 및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세대별 경험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동시대에 절대 빈곤의 세대부터 민주화, 글로벌화 세대까지 각양각색의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K. Mannheim에 의하면 동일한 연령집단의 세대 개념은 계층이나 계급, 세계관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 체험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동의 시간 체험에서 오는 세대의 힘은 사회적인 힘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대 체험(한국전쟁, 민주화 등)은 일종의 사회적인 영역인 것이다. 40~50년의 역사 속에서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비슷한 속도와 환경을 체험한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시간 동안 각 세대가 살아온 삶의 질과 체험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국 사회는 그만큼 비동시성의 동시성⁴⁾적인 갈등 양식이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1)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반대(48.1%)를 3.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2)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세대는 2016년 현재 한국인 평균 중위연령(나이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뜻함) 40.8세를 기준으로 40대 이상을 지칭한다.

3) 2016.08.18., 서울경제, "[이노베이션 코리아 2014] 세대갈등 '공존의 길'은 있다 <4> 충돌하는 신구세대", <http://www.sentv.co.kr/news/view/417213>

4)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합적 중층성(complex over determination) 또는 불균등연합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제로성장사회라는 동시성 속에 제한된 자원과 기회의 분배문제로 두 세대가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자리다. 청년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⁵⁾로 불리고 있는 상황 하에 베이비부머⁶⁾는 길어진 노년의 안녕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동시장에 더 머물 수 있는 '정년연장'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실행할 수 있는 규모의 기관은 대다수가 N포세대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다. 결국 기업에서는 두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정년연장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⁷⁾ 이처럼 세대별 경험 차와 저성장시대라는 환경 속에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이렇듯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수명 연장은 사실 인류의 오랜 꿈이었으며 희망이었다. 그러나 경험해본 적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인류에게 있어 고령화 사회는 축복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는 원하던 원하지 않건 간에 '한 지붕 밑, 4세대'⁸⁾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여기에 저출산이 더해져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 인구비율마저 급격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유구한 전통 속에 삶의 지혜와 경험의 전수를 통해 존중받았던 소수의 시니어 세대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고령화 앞에 더 이상 전수자로서의 역할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 세대는 이제 다수의 목소리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무관심이 크고 인구 구성도에서도 그 비중이 작아 그들의 목소리가 기성 정치권에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서원석, 2013).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삶의 기회와 안정성을 박탈당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 불만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역시 세대 간 갈등의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미래'라는 동일한 시대 흐름 앞에 '청년수당'을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것인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 과도한 예산 낭비로 볼 것인지는 시니어 세대(혹은 사회)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안전망이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밑바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1.043(2011년 기준)으로 OECD에 가입된 24개국 중 5위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된다. 향후 고령사회가 심해질수록 세대갈등은 사회갈등 중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연금, 문화, 정치적 소신, 일자리,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세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나 세대 간 갈등은 계층 간 갈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과거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세대들이 어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기회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 세대 간

5)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집, 인간관계 추가)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말한다.

6)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55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해당된다.

7) 2016.04.21., 뉴스1, "정년60세 의무화...신입사원 채용 축소 현실화", <http://news1.kr/articles/?2640668>

8) 2013.07.15., 동아일보, "'한 지붕 4세대' 몸살 난 대기업", <http://news.donga.com/3/all/20130715/56448832/1>

차이가 차별 또는 갈등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한 효과적인 세대통합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프로그램 개념과 특성

‘사회통합’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 시작된다. 사회통합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용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노대명, 2009).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대 갈등 역시 다양한 사회 갈등 중 하나로, 사회통합에서 세대통합 정의의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세대통합이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선의의 공동 목표를 설정, 각자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충족과 공존이 가능한 상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대 간 선의의 공동 목표를 수행한 경험은 서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지속성 있는 세대 공동체로 발전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세대통합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Peacock과 Talley(1984)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친밀한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감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과업을 통해 협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미 있는 과업’과 ‘협력’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각 세대별 개인적 욕구와 공익성, 두 가지 교집합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을 연계해 얻은 성과 안에서 협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 간 차이 속에서 만들어낸 협업의 가치와 이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는 참여자에게 긍정적 경험을 선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공감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듯 ‘세대공감’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동(同)시대인로서 서로를 공감하는 것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효과적인 세대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세대공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세대통합과 더불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세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대 간 물리적 접촉 양 늘리기(share site)

세대통합을 위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리적 ‘접촉 양 늘리기’다. 세대 간 질적 접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양적 접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접촉 양을 늘림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늘리고 그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만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①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미국)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The Intergenerational School(이하 TIS)은 세대통합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생교육 학교다. 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시니어 세대다. TIS의 차별점은 전통적 방식인 나이에 따른 학급 분류를 하지 않는 것과 개인의 학습 성장 단계에 맞추어 8단계로 학급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스며들기 (Emerging)	시작하기 (Beginning)	발전하기 (Developing)	가다듬기 (Refining)	적용하기 (Applying)
K1	K1~2	K3~4	K4~5	K6~8

TIS의 학습단계도

따라서 TIS의 한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시니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세대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의미 있는 목표와 협업을 이루고자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에 지역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학생들의 우수한 학습 태도와 결과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큰 호응 얻고 있어 현재는 Near West Intergenerational School(NWIS)과 Lakeshore Intergenerational School(LIS)를 추가 설립해 지역 중심 세대 간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하고 있다.

② The Meadows School Project(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이하 MSP)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콜드스트림 지역에서 실행된 세대통합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마을 교회, 노인 요양 시설 등에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간이 교실을 마련해 공간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MSP는 청년들과 시니어의 접촉이 일회적이지 않고 연속성을 갖도록 지역 공동체 기반의 학습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아동 혹은 청소년들이 시니어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MSP의 목적은 세대 간 태도와 이해를 고양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MSP의 차별점은 다른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달리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접촉할 때, 느슨한 연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강도 높은 수준(몰입)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을 학기에 5주, 봄 학기엔 3주 동안 집중 몰입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③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Practice(영국)

영국의 싱크탱크 Beth Johnson Foundation(이하 BJB)의 세대 간 통합 관련 부서인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Practice(이하 CIP)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곳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지방정부나 파트너기관들의 개별수요에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한다. CIP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 예로 런던의 ‘아카시아 하우스’는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은 건물로 다양한 세대가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입주자인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생활 환경이 중첩되어 생활 속에 세대통합을 할 수 있는 공공(公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 BJB 대표의 말은 세대 간 물리적 접촉 양을 늘리기 위한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준다.

“좋은 공공장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만들고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곳이지만,
나쁜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그 곳에서 각자의 영역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벽을 지게 된다.”

2) 세대 간 연결 매체 다양화하기

세대 간 접촉 빈도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세대 간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나 특정 세대 위주의 프로그램 내용(스마트폰 교육, 이메일 교육,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답습하기보다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발굴해야만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일어난다.

① Magic me(영국)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하여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영국 런던에서 1989년에 만들어졌다. 지역 특성상 인종·종교·문화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각기 다른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Magic me의 목표다. 현재 연극, 사진, 영화 등의 예술 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세대 갈등 극복 및 다양성 존중을 통한 시민성 함양에 가치를 두고 있다. 참가자는 지역의 학교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여기에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진행한다. Our Generations, Take Open Space, Ages and Stages, BEAUT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② Young and old in school(독일) & 아름다운 서당(한국)

독일의 노르드라인페비트팔렌 주 하르제빈켈에 위치한 중등학교 Young and old in school은 세대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초기 목적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 분야별로 은퇴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정원 및 조경, 석고판 설치, 자전거 수리, 목공업, 태양전력, 자동차 산업 등의 기술 기능 분야에 시니어 인력이 투입되었다. 세대통합을 우선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아니나 실행 결과 자연스러운 세대공감이 일어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름다운 서당⁹⁾을 들 수 있다. 아름다운 서당은 대기업, 금융계 종사자였던 시니어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교육봉사단체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경영, 경제학 등을 시니어와 청년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설계돼 있다. 시니어 세대가 선생님이 되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전통적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강조해 청년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공감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아름다운 서당은 선생님이로 활동할 인력풀도

9) 40여명의 시니어들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세대에게 물려주고자 설립한 단체로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http://beautifulseodang.org/>

갖추었고, 학습에 참가할 학생들의 욕구도 높으나 거점이 될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우리나라 세대통합 실행 현황과 한계

1) 필요성 인식 부족

세대통합교육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이질감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1960년대 노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배현미, 2003),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이에 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진, 2010). 그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시작되고 세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대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이슈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각 급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세대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국 사회의 시니어 세대는 불모지의 땅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일궈내 '협업'보다는 리더의 기업가정신을 더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개인 능력 중심의 성공 패러다임으로 인해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는 청년 세대와의 협력이 어렵고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청년 세대는 엄청난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한 세대다.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풍부한 경험은 더 이상 시니어들만의 강점이 아니다. 그만큼 시니어 세대의 사회 속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업의 경험이 부족하고, 청년 세대에 기대하는 바가 없는 시니어 세대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빨리 경험하고 답을 찾고 있는 청년 세대. 고령화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런 세대 간 차이는 곧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특히 일자리와 정치 분야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 인프라 부족

유럽연합은 2012년을 '적극적 노년기와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해'(The Year for Active Ag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로 정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세대통합을 바라보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적극 수용해 평생학습기관이나 대학교가 주체적으로 세대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사회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나,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접근법으로 '나이 듦(Ageing)'보다 '나이든 시니어'에 집중하고, 경제적 지원과 출산 장려를 그 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은 고령화를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의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는 이러한 변화를 넘어 다양하게 전개되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가 단지 시니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 뒤에는 시니어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 및 인식전환 프로그램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소수의 프로그램도 단순 체험형(제기 만들기, 예절교육 등)이 대다수라 세대 간 접촉의 기회가 내실 있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TIS처럼 같은 공간을 다른 세대와 함께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를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1995년 경북대학교에서 명예학생제도를 도입해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함께 강좌를 수강하도록 했고 이어 충북대, 상명대, 전북대 등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수강 인원의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전북대학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더욱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신미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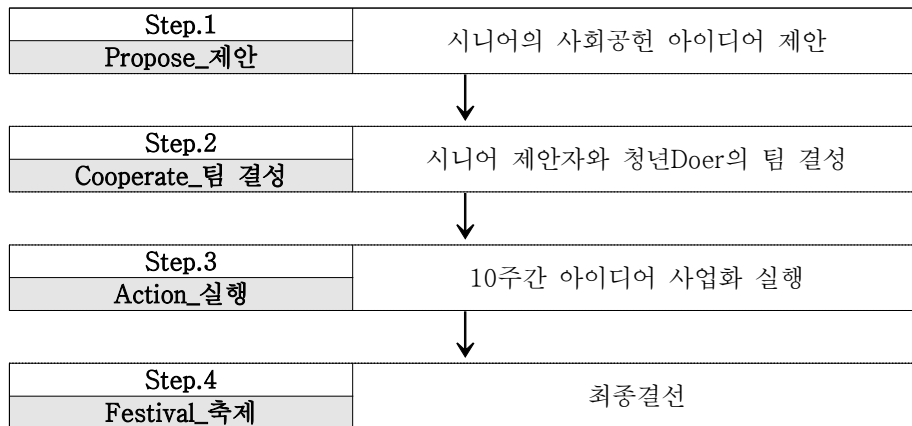
4. 희망제작소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소개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니어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해왔다. 2006년부터 시니어사회공헌센터를 설립해 ‘행복설계아카데미’, ‘시니어NPO학교’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부머의 제3섹터¹⁰⁾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은퇴 베이비부머들의 사회 재참여를 돕고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니어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사업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세대 갈등에 주목하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시니어 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세대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배영순 외, 2015). 그리하여 2013년부터 세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세대공감 시리즈(Generations Together)’를 운영해왔다. 이 시리즈는 첫째,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둘째, 지역 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접촉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1) 시니어드림페스티벌

10) 주로 국가(제1섹터)와 영리활동의 경제 분야(제2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비영리영역을 말한다.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의 배분에 관여하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 3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 섹터라고 한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운영 프로세스

올해로 3회에 접어든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회공헌적 아이디어(장애인을 위한 도시 텃밭 가꾸기, 마을 소개 홈페이지 만들기 등)를 가진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가 결합해 10주간 사업모델을 직접 실행해 보는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시니어의 강점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청년의 강점인 실행력과 기술력 등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두 세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함은 물론 협업의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긍정적 경험을 통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시니어 세대는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제안자가 되어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꿈을 현실로 실행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2) 동네한바퀴

<동네한바퀴>는, 시니어가 가진 지역사회 정보(지리, 위치 등)와 그곳에서 체득한 역사적 경험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¹¹⁾기술을 활용해 시니어와 함께 동네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지역 중심 세대공감 프로젝트다. 지도의 주제는 참여자 간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 이슈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선정한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오래된 곳,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동네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화장실 지도 등이 있다. 이후 실제로 지역을 탐방하며 주제에 맞는 장소를 탐색,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보를 기록한다.

‘고향’이란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일 수 있다. 시니어의 경우 대부분 일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은퇴 후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¹²⁾ <동네한바퀴>는 관계 회복의 시발

11) 커뮤니티매핑은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참여, 공유를 이 행한다.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 중 하나다. (임완수, 커뮤니티매핑센터)

12)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 New Life Cycle>, 관계의 재구성 p103-109

점으로 지역 커뮤니티 탐색함과 동시에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자존감을 되찾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점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사과(사랑에 빠진 과학)캠프

〈사과캠프〉는 과학, 기술계에서 은퇴한 시니어와 과학, 기술에 관심 많은 청소년이 적정기술¹³⁾을 매개로 만나 지역 사회 이슈를 해결해 보는 캠프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과학기술 근로자가 많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시작했으며, 주니어는 대전의 거주하는 17~19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신의 장래희망인 과학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지역사회와 해당 시니어의 이슈를 발견해 적정기술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제안한다. 주니어는 시니어를 만나 이슈를 발견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니어는 주니어의 아이디어에 과학기술적 조언을 더해 줌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세대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니어의 경우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점으로 세대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주니어의 경우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니어의 전문성을 발견해 세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 향후 주니어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시니어 세대가 조력자가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세대공감 교육의 기대효과

1) 인식변화



▲ 다른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세대 간 접촉 전 진행한 인터뷰 내용 중)



▲ 겪어본 다른 세대는 어떠했나요?
(두 세대 간 접촉 이후 진행한 인터뷰 내용 중)

13) 적정기술은 제삼세계로 직수입된 근대 과학 기술이 그 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하기보다 인적·물적 환경을 파괴한 데 대한반성에서, 새로이 자립 경제의 관점에서 모색된 기술개념이다.

세대공감 시리즈를 수행하면서 각 세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니어는 시니어를 사회적 약자 또는 독단적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여지가 없는 세대로 여겼다. 반대로 시니어는 주니어를 책임감이 부족하고 개성이 강한 존재, 활력 넘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세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 사후 인터뷰에서 시니어는 주니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고 주니어는 시니어를 소통이 가능한 연륜을 가진 전문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컸다(허세나, 2014). ‘세대공감 시리즈’는 시니어의 경우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니어의 경우 단순한 지식의 수요자 입장이 아닌 평등한 관계로 설정된 팀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세대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긍정적 인식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돌봄 기능 활성화

영국에서 세대 간 통합 활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세대를 연계하기 위해서였다.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는 각기 다른 형태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고, 세대통합 공동체 모델의 순기능인 돌봄으로 그 일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세대통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활성화 되었을 때 돌봄 기능이 작동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TIS는 미국 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태도와 성적이 향상되고 비행 문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 공동체 내 빈곤가정의 주니어는 시니어에게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 주니어의 경우 시니어 세대가 갖는 신체적·인지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서로에게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더욱 결속력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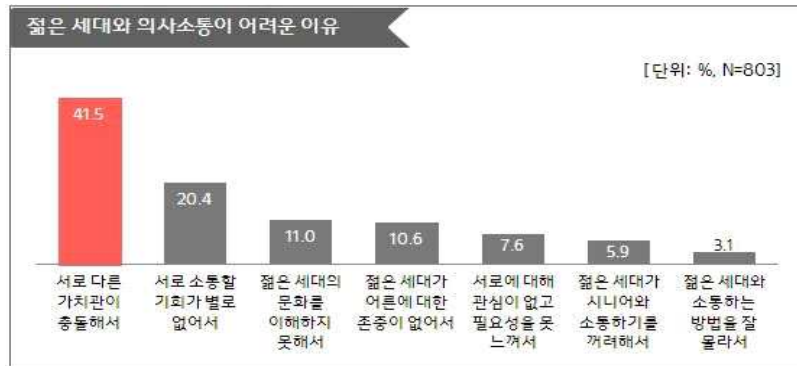
3)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올바른 시민의식 향상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사회 이슈’는 좋은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네한바퀴>나 <사과캠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의 후기나 설문조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니어와 주니어 모두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참여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 설정을 통해 다른 세대와 사회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본 후에는, 참가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 이슈에 반응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TIS의 학생들의 경우 마을 주변 호수에 무차별로 증식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말조개 퇴치 프로젝트인 ‘Lake Erie Shoreline Project’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지역재단연합의 후원을 받아 처치 곤란한 말조개를 퇴비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시니어 원예가, 농부, 농기구 상가 등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사회 이슈를 통해 사회와 자아 간 연결성을 찾아내고 지역사회 일원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인지하고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성은 사회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직접 행동하는 힘을 갖게 한다.

6. 세대공감 프로그램의 방향성 제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교육의 경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나이와 성별 등을 획일적으로 분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요 대상이 시설이나 기관 등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활용자 중 고령자가 많을 경우, 이를 문제시 삼는다.¹⁴⁾ 이 같은 관점으로 세대통합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활용할 공공장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세대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접촉할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니어가 주니어와 소통이 어려운 이유

실제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¹⁵⁾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가 다른 세대와 소통할 물리적인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니어가 다른 세대와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로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20.4%로 나왔다. 그러나 심층인터뷰 결과, 실상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험조차 대부분 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인 답변은 경험이 아닌, 추측 바탕일 가능성이 크며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즉,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 선입견이 고착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연결고리가 되어 줄 매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세대 간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다. 대부분의 세대통합 교육이나 프로그램에서 두 세대의 역할이 수혜자와 공여자로 고정되어 있어 전통적인 ‘효 사상’ 중심의 접근법으로 두 세대를 한 프레임에 엮고 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세대 간 공감을 하기보다는 일방적 공경(주니어가 시니어에게), 또는 일방적 전승(시니어가 주니어에게)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제 역시 다양화하는 데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고 효과 측면에서도 세대 간 부정적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14) 박재구, “의정부 청소년 수련원, 성인들 놀이 시설 전략”, 「중부일보」, 2015.4.23

15)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2015-02 다운로드

<http://www.makehope.org/wp-content/themes/makehope/action/download.php?id=25889>

최근 서로 다른 세대를 엮어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대중적인 모델은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가 결합하는 멘토링¹⁶⁾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은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모델로 청소년 진로 상담이나 청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세대통합 목표로 고안된 모델이 아니기에 세대공감은 선택적 부가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세대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세대 간 접촉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세대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효과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긍정적 접촉의 경험 : 세대 간 대등한 관계 설정

첫 경험이 중요하다. 세대별 각기 다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 실제로 박미진(2010)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주요한 매체로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언급한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세대 간 첫 경험이 직접적 접촉보다는 간접적 접촉일 가능성이 크며 이런 경우 세대 간의 '다름'을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기 쉽다.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직접 만나고, 겪으면서 얻은 인지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세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등함은 똑같은 역할과 위치가 아니라 각 세대의 특색과 강점에 맞는 역할을 선정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사과캠프>의 경우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이 명확했다. 시니어는 그들의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 통찰력을 청년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동시에 청년 세대는 그들이 가진 기술과 에너지, 정보를 시니어와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보완해 가며 소통할 때 세대 간에 벌어진 간극은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 있다.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위한 공간 공유

세대 간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공간의 문제다. 두 세대 혹은 다(多)세대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는 특히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학교에서 앞장서서 공간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활동하는 모습은 아직은 생소하며 생활 속 체육 공간, 휴식 공간, 학습 공간 등 대부분이 연령대별로 분류되어 있다. 세대 간 생활환경 속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확보되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새로운 공간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MSP처럼 지역 내 유희(遊休) 공간을

16)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사람이 멘티(Mentee:멘토링을 받는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활용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세대가 함께 할 공간을 일부분 확보해 소규모로 실행해보는 것 또한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3)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세대 간 교육(Intergenerational Education)

초고령 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 아래 '100세 시대'의 도래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정 시점, 특정 집단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집단 간 협력과 공존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다세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부딪혀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러 세대와 상호 교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와의 협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혹은 대중매체)에서 만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각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다른 세대와의 만남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세대 간 협력 경험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청년은 사회 진출 후, 처음으로 만나는 시니어 즉 상사와 갈등을 겪는 '사내 세대갈등'¹⁷⁾을 경험하게 되고 시니어는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격차 세대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보다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와 공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편적 경험 공유 중심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개발

세대공감 프로그램에 있어 공생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특정 개인의 능력보다는 보편적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획득될 수 있다. 시니어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지만 특화된 과학기술 혹은 예술분야의 시니어만이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0년간 일한 경험과 능력이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세대를 위한 재능기부의 욕구는 있으나 이 욕구를 해소할 다양한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시니어의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 나눔' 뿐만 아니라 보편적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세대공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을 포함한 '경험'이다. 보편적 경험을 토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시니어의 사회 참여율은 높아지고, 유아 및 청소년과 청년들은 생애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세대와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세대 간 공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을 때 상호교류하기 가장 성공적인 주제는 예술, 요리, 자연 환경 조성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Allen, 2010).

17) 한준규, “꼰대 임원 vs 무개념 사원... 세대 갈등에 발목 잡힌 기업” 「한국일보」, 2016.6.1

5) 세대공감 지속성 제고 : 지역 중심의 공동체 형성

두 세대가 함께 하는 경험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지역 공동체가 세대공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공동체는 혈연 같은 자연발생적 원인에 의하여 엮어진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의 의미로 변화되었다.(한정란, 2003) 그 이해라는 것은 사진촬영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중심의 세대 공동체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시니어와 청년세대 간 연대를 맺어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민관기관, 교육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로 세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선두로 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각 지역의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사회문제를 세대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각 세대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7. 새로운 세대통합 모델 제시

앞 장에서 살펴본 기대효과에 맞추어 볼 때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었다. 그것은 각 세대가 직접 만나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 사례의 경우, 시니어 세대를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연륜, 전문성을 활용해 어린 세대가 그들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존중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만한 공통의 관심사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편적 경험을 통한 사회이슈 중심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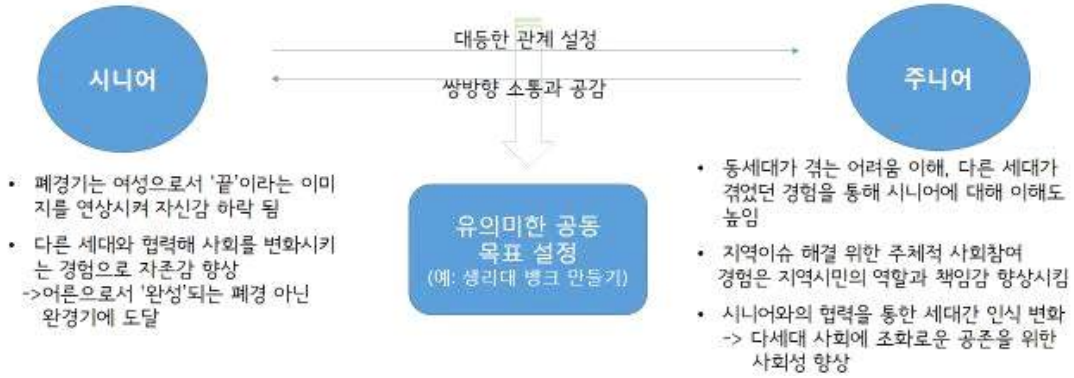
1) 보편적인 신체경험과 역사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생리’라는 여성에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신체경험을 통해 시니어와 주니어가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공동목표(생리대 모금, 생리대 बैं크 만들기 등)를 설정해 소통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참여자 본인의 역사이자 동세대와 다른 세대가 서로 경험을 공감하며 협력을 통해 세대 간 인식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여됨과 동시에 공생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 된다.

사회적 이슈

- * 생필품인 생리대 가난 소녀, 사각지대에 놓이다
- * 맞춤형 지원(물품, 교육)을 실시하기에 부족한 복지전문인력

여성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인 월경으로
두 세대가 소통하는 경험을 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이슈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Casserole Club은 호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남는 음식으로 멋진 일을 실천하자(doing something great with an extra plate)'라는 슬로건 아래 2011년부터 시작됐다. 주최기관인 FutureGov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들의 이웃 중 자신을 위해 항상 요리할 수 없는 이웃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현재 캐서롤 클럽은 7,000명 이상의 이웃들이 참여해 서로의 집밥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사회적 이슈

- * 규격에 맞지 않거나 상품성 없는 농산품의 1/3은 폐기
- * 굶고 있는 소외된 주변의 이웃

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주제 '음식, 요리'로
두 세대가 소통을 경험한다



참고문헌

- 김도연 외 (2010), 「한국 젊은이, 영국 시니어를 만나다」, 희망제작소
- 대한은퇴자협회 (2003), “세대차이! 현실과 해법”, 20vs50포럼 자료집
- 박미진 (2010), “중간세대의 노인교육과 세대공동체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훈 (2013),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 북스
- 배영순 · 최호진 · 허새나 (2015),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희망리포트 2015-02, 희망제작소
- 배현미 (2003), “노인교육에 의한 중학생들의 노인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용석 (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KIPA 연구보고서 2013-26
- 서원석 (2014), “세대 간의 갈등과 그 해소방안”, 토지주택연구원
- 신미식 (2016), “한국의 세대간교육 활성화와 대학의 역할 :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 최호진 · 허새나 (2014), “사과캠프 결과고서”, 희망제작소
- 카를 만하임 (2013), 「세대 문제」, 책세상
- 프랜시스 쿤로이더 외 (2015),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슬로비
- 한정란 (2003),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공동체교육”,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 허새나 (2014), “동네한바퀴in종로구 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 홍영란 외 (2013), “한국 사회의 세대통합 실태 진단 및 정책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 홍영란 (201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Peacock, E. W. & Talley, W. M. (1984), “Intergenerational Contact: A Way To Counteract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10(1)
- The Inetergenerational Schools (2015), “2014-2015 Annual Report”

홈페이지

아름다운서당 <http://www.beautifulseodang.org/>

The Inetergenerational Schools <http://tisonline.org/>

Beth Johnson Foundation <https://www.bjf.org.uk/training-programmes/intergenerational-learning>

희망제작소 “함께 살며 함께 배우는 독일 시민들” <http://www.makehope.org/?p=3938>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SDS
퇴근후
Let's
HMC
Social Innovation
Camp 36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마기브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HMC
지역공동체
모용민용가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오픈포
시·문·화·술·불
농촌 희망 본부
디자인 재발견
서울의 재구성

모든 희망은
good fund raiser
커뮤니티
사회적
금융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타임지성프로젝트
장은변화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활동
good fund raiser

웃는마을명함대어
문드라운
시민문화예술불꽃행사
목민관
학교

공공
리더십
U3A서울
감사의식탁
사회적
혁신

나는 희망한다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활동
아름다운 시니어단체가

시민문화
예술활동
아름다운 시니어단체가

마을이학교다
카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윌츠클
@서울
공유경제
기업가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행복하게
아름답게
활한ICT

천개의직업
거버넌스
좋은시장
확교자
학교자
포럼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
ANIS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아시아 사회적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업
어린이 함께
두번째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문화
행복하게
아름답게
활한ICT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행사대
강화지역이 학한ICT강신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활한ICT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